

대한제국 시기 정치학 수용의 선구자 안국선의 정치학*

— 그의 생애와 정치학 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

金學俊 (인천대)

I. 문제의 제기

한국에서 정치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적어도 출판물만을 놓고 볼 때는 한국의 정치학계에서 결코 높지 않다. 그 점은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이 한국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발표된 일이 드물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필자의 조사로는, 金桂洙가 이 주제에 관해 가장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고,¹⁾ 具範謨, 金榮國, 金河龍, 朴東緒, 朴鍾晟, 徐仲錫, 孫製錫, 李廷植, 張達重 등이 각각 어떤 특정한 시기에 관해 논문을 발표했다.²⁾ 한국의 정치학

* 안국선에 관한 필자의 첫 번째 논문은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1987년 12월), 233-246쪽에 발표한 「우리나라 정치학 도입기의 지도적 정치학자 안국선의 주요 저서 소개」이다. 이 논문은 불만족스러웠다. 따라서 필자는 그 뒤의 연구를 포함시켜 “The Life and Works of An Kuk-son, a Pioneer of Political Science in the Great Han Empire”로 개고하고 이것을 1995년 4월 21-24일에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한국학회(AKSE) 제17차 연례총회에서 발표했다. 이어 이 논문을 보완해 같은 제목으로 *Korea Journal*, Vol.35 No.4(Winter 1995), pp.26-38에 발표했다. 그 뒤 필자는 안국선에 관한 소중한 자료들을 동아대학교 金孝全 교수로부터 받았으며, 그리하여 앞의 논문을 보완해 이 논문을 쓸 수 있게 됐다. 이 점에 대해 김 교수에게 감사한다.

- 1) 김계수의 논문들은 그의 책 『한국정치학: 이론과 경향』(서울: 일조각, 1969) 및 『한국과 정치학』(서울: 일조각, 1987)에 실려 있다.
- 2)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1967)의 특집인 「한국정치학의 연구 및 교육 경향의 검토」, 이 특집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게재됐다. 구범모,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이정식, 「한국정치 및 정치과정 연구 현황」.; 손제석,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 경향」.; 박동서, 「한국행정학의 현황과 역할」.; 서중석, 「8·15 해방이후의 한국정치학계」, 『한국정치학회보』 창간호(1959), 185-189쪽. 이 창간호는 『정치학』이란 별도의 제호 아래 창간됐다. 김하룡, 「정치학」, 『한국현

사를 체계적으로 다룬 단행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방면이 얼마나 경시돼 왔는가를 잘 말해준다.

그처럼 연구가 빈약한 한국의 정치학사 가운데서도 가장 연구되지 않은 시기는 김계수가 이른바 배태기(胚胎期)라고 부른³⁾ 조선왕조 말기의 시기, 특히 대한제국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조선에는 서양의 학문과 사조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고 있었고, 거기에는 서양의 정치학 역시 포함돼 있었다.

이 ‘배태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선 兪吉濬을 꼽을 수 있다. 1881년에 일본의 게이오(慶應)의숙에 입학함으로써 일본의 동인사(同人社)에 입학한 尹致昊와 함께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된 유길준은 귀국한 뒤 거기서 배운 정치학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1886년께 『정치학』을 썼던 것이다.⁴⁾

그러나 정치학의 도입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만 볼 때 유길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이는 안국선이라고 생각한다. 안국선은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한국인이었고, 또 정치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을 출간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유길준의 『정치학』은 원고 상태로만 남아 일반 사람들에게

대문화사 대계』Ⅱ(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6), 237-277쪽; 김영국,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1977), 39-49쪽; Dal-Joong Chang, “The Current State of Political Science Research in Korea”, 『국제정치논총』 제24집 제1호(1984), pp.207-219; 박종성, 「현대 한국정치 연구의 경향과 방법: 근대화의 정치발전, 정치변동론과 그 이후의 논의」,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제19집(1987년 4월), 85-150쪽 등.

3) 김계수, 『한국과 정치학』 제1장(“한국에서의 정치학”), 2-3쪽.

4) 이 원고는 미완성의 상태로 끝났으며 출판되지 않았다. 이 원고는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가 일조각에서 1971년에 펴낸 『유길준 전서』 전5권 가운데 제4권(정치경제편)에 영인돼 있다. 1986년도 한국정치학회 회장 李洪九는 그 해가 유길준의 『정치학』 집필 1백주년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나라 정치학의 뿌리를 그 원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구, 「근대 한국정치학 백년: 그 한계성의 극복을 위한 자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1986년 12월), 5-10쪽. 한편 이미 유길준에 대해 몇 편의 글들을 발표한 李光麟 스스로 이 원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그의 제자가 이 원고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윤병희, 「유길준의 입헌군주제도론: 未定稿 『정치학』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13집(1988년 2월), 45-67쪽. 이 원고에 대한 필자의 분석은 다음 글에 포함돼 있다. 김학준, 「한국정치에 관한 몇 가지 자료들」,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 제1호(1989년 봄), 303-308쪽. 유길준 전기로는 兪東濬, 『유길준전』(서울: 일조각, 1987)이 유일하다.

읽히지 않았음에 반해 그의 『정치원론』은 널리 읽혔기 때문이다. 또 그는 활발한 집필과 강의를 통해 정치와 외교에 관한 서양의 이론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화기의 한국 역사를 전공한 李光麟이 그를 ‘한국인으로서 정치학 전공 제1호를 기록한 인물’⁵⁾이라고 자리매김한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안국선의 지위가 이러한데도 정치학자로서의 안국선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정치학계에서 미약하다.⁶⁾ 이것은 첫째 그가 개화기 시대 신소설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이유에서 국문학계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현실과⁷⁾ 대조된다. 이것은 둘째 서양의 헌법 및 통치구조에 관한 이론이 조선 말기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안국선이 수행한 역할을 폭넓게 연구한 법학계의 현실과⁸⁾ 대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정치학자로서의 안국선에 초점을 맞춰 그의 생애와 저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의 저술들 가운데 『정치원론』을 비롯한 정치학 관련 저술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금수회의록』과 『共進會』를 비롯한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 5) 이광린의 말은 다음에 인용됐다. 趙佑石, 「한국정치학 뿌리 연구 활발」, 『서울신문』, 1987년 7월 21일, 6쪽.
- 6) 다음의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이 하나 나와 있을 뿐이다. 安容濬, 「안국선의 정치학에 관한 연구: 『정치원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88.
- 7) 金光鏞, 「한국소설발달사(하)」, 『한국문화사대계』 V(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7), 1202-1204쪽; 尹明求, 「안국선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1974 및 『개화기 소설의 이해』(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6); 趙神權, 「안국선 문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현상과 인식』 제1권 제3호(1977년 가을), 151-161쪽; 權寧珉, 「안국선의 생애와 작품세계」, 『관악어문연구』 제2집(1977년 12월), 123-141쪽; 권영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 천장 안국선의 경우」, 『문학과 지성』 통권 34호(1978년 겨울), 1244-1259쪽; 권영민, 「안국선의 예술과 지조: 상황과의 갈등 속에서 한 시대의 고아로」, 『월간 2000년』(1983년 5월), 92-94쪽; 권영민, 『한국근대문학과 시대정신』(서울: 문예출판사, 1983), 제1장 “안국선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 212-228쪽; 李在銑, 「안국선론」, 안국선, 『금수회의록(외)』(서울: 범우사, 1983), 11-19쪽. 崔元植, 「『비율민 戰史』에 대하여: 아시아의 連帶 II」, 『문학과 역사』 제1집(1987), 244-258쪽.
- 8) 崔鐘庫, 「한국의 법률가상 20: 안국선」, 『사법행정』(1983년 11월), 64-71쪽; 김효전, 『서양헌법이론의 초기 수용』(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447-457쪽.

II. 도쿄 유학과 귀국 직후의 투옥

안국선은 1878년 12월 5일에 경기도 安城郡 古山面 月香里 171번지에 자리 잡은 평민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관이 竹山인 安稷壽의 첫 아들이었다.⁹⁾ 안국선의 어린 시절은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모두 그가 만17세 때인 1895년에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으로 유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1895년은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진행되던 상황 속에서 갑오개혁이 시작되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역사적인 해 1894년의 다음 해이다. 이 해에 청일전쟁을 마무리짓는 조약이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체결됐고, 이로써 조선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게 된 일본이 조선과 유학생 파견에 관한 계약서를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계약서에 따라 182명의 조선 청소년들이 관비유학생의 자격으로 일본에 유학하게 됐는데, 거기에 안국선도 포함됐다. 뒷날 안국선의 양부가 되는 安嗣壽는 그 무렵 조선 조정의 권력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일본에 유학했고 동학혁명과 갑오개혁을 거치며 警務使와 度支部協辦 및 군부대신에 올랐던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琦善 및 昌善과 아울러 국선을 함께 관비유학생으로 주선했던 것이다.

안국선은 다른 관비유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러했듯 우선 경응의숙 보통과에서 수학했다. 그 뒤 1896년 9월에 3년제 도쿄(東京)전문학교 정치과에 입학하고 1899년에 졸업했다. 이 학교는 1882년에 개교한 학교로 개교 20주년이 된 1902년에 와세다(早稻田)대학으로 이름을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⁰⁾ 그가 와세다대학 졸업생으로 자처하고, 또 그를 다룬 글들 가운데 간혹 그를 와세다대학 졸업생이라고 쓴 까닭이 거기에 있다.

와세다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그의 학적부에 따르면, 그는 安明善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는 1학년 때 경제학, 국가론, 헌법, 역사, 경제사, 지리 등 6개 과

9) 안국선의 생애에 관해서는 주7에서 소개한 윤명기에 의해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다. 이것을 토대로 주7에서 소개한 권영민은 안국선의 생애에 관해 더 자세히 밝혀냈다. 주7의 최원식의 논문 역시 안국선의 생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하 안국선의 생애에 관해서는 출전을 특별히 밝히지 않는 한 대체로 이 세 논문에 의존했다.

10) 『仁村 金性洙: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서울: 동아일보사, 1985), 79쪽.

목을 수강했고, 2학년 때 재정학, 비교헌법, 국가와 헌법, 민법, 근대사, 헌정사 등 6개 과목을 수강했으며, 3학년 때 국가예산, 외교사, 현대사, 공법, 국제통상, 국제사법 등 6개 과목을 수강했다. 3년 평균성적은 B⁺ 수준이었다. 그는 일본 학생들 및 한국 학생들과 더불어 어떤 그룹을 조직하려고 했다고 와세다대학 大學史編集所의 자료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그룹의 성격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다.

이 무렵 일본의 정치사상계는 국권론 대 민권론의 대결 양상을 띄고 있었다. 국권론은 물론 국가에 권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이론이었고 민권론은 그것과는 반대로 국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이론이었다.¹¹⁾ 정치학도로서 안국선이 어느 성향의 정치학에 영향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민권론의 선구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세운 게이오에서 잠시나마 공부했던 것으로 민권론에 기울어졌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귀국한 뒤 발표한 논문들은 대체로 민권론에 가까운 것이었다.

졸업은 했으나 곧바로 귀국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집안 어른이며 후원자인 안경수가 1896년에 발족한 독립협회에서 간부로 활약한데 이어, 개화당의 거물인 朴泳孝와의 연계 아래 1898년에 대원군의 손자 李垞鎔을 앞세워 高宗의 양위를 도모한 역모의 주동자로 수배돼 일본으로 망명했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도쿄에는 조선의 망명객들이 적지 않았다. 1895년에 일어난 민비 시해와 1896년에 일어난 아관파천 등은 친일개화파들의 입지를 제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쿄로 피신하게 됐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요원들을 보내 개화파 망명자들의 동태를 늘 감시했던 것인데, 안경수를 자주 만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안국선 역시 그 감시망에 잡혔을 것이다. 이 점이 안국선으로 하여금 귀국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00년에 안경수는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막후교섭을 믿고 귀국해서 자수했다. 그러나 이미 1897년 10월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친 조선 조정은 이해 5월에 안경수를 平理院에 넘겨 심하게 고문한 뒤 上奏의 절차도 생략한 채 교수형에 처했다. 그 결과 한일관계는 더욱 굳어져버렸다.

대체로 이 무렵에 안국선은 귀국했다. 조선 조정이 일본 정부가 조선의 국사

11) 현대일본연구회(편), 『국권론과 민권론』(서울: 한길사, 1982).

범들을 감싸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망명객 전원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점에 그가 어떤 동기에서 귀국을 결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안경수 사건의 심리 및 재판 과정에 자신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심했을 수 있다. 반면에 망명객들도 망명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귀국해 ‘권토중래의 계획’을¹²⁾ 세워야 한다고 마음먹던 때였던 만큼 20대초의 젊은 그로서도 비장한 결심을 했을 수 있다.

안국선이 일본 유학 길에 올랐을 때는 귀국하면 관계로 진출하겠다는 뜻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그는 관직에 대한 꿈을 버리고 재야 인사들과 접촉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1899년에 해산된 독립협회의 회원들과 교우한 것이다.

그러다가 1902년 6월에(또는 1901년 3월에?) 서대문 감옥에(또는 종로감옥에?) 갇혔다. 그가 만24세 때의 일이었다. 그의 아들의 짧은 회고에 따르면, “모종의 정치운동을 획책하셨는데 탄로되어 참형의 선고를 받으셨다”고 한다.¹³⁾ 그의 투옥과 관련한 자료는 이것뿐이어서 그가 어떤 사건으로, 또는 어떤 혐의로 투옥됐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안국선의 감옥 사진 두 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최원식은 그가 박영효와 유길준 등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개입된 ‘정변 획책’에 연루돼서가 아니라 ‘李商在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추론한다.¹⁴⁾ 독립협회 회원이었으며 개화파의 일원이던 月南 이상재는 1902년 6월에 ‘조작된 개혁당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李完用이 설치한 특무기관인 警衛院에 체포됐던 것인데, 안국선 역시 여기에 연루됐던 것 같다는 해석이다.

감옥 생활은 악형으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웠다. 어느 자료에 따르면, 안국선은 어느 술자리에서 “매일 형벌을 가하는데 정갱이가 엇가락처럼 늘어났다”고 회고했다고 한다.¹⁵⁾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곧 전라남도 진도 유배로 감형된 사실이다. 거기서 그는 한글도 모르는 토박이 섬처녀로 다섯 살 아래인 李淑堂과 ‘灼熱의戀’이 생겨 결혼하게 됐다.¹⁶⁾ 더욱 다행스럽게, 러일전쟁이 일

12) 유동준, 앞의 책, 234쪽.

13) 安懷南, 「先考遺事」, 『박문』(1940년 6월), 2쪽.

14) 최원식, 앞의 논문, 347-348쪽.

15) 金東錫, 『뿌르조아의 인간상』(서울: 탐구당서점, 1949), 13쪽. 최원식, 앞의 논문, 247쪽에 인용돼 있다.

어나면서 정국이 바뀔에 따라 그는 이상재 등과 함께 1904년 1월에 석방됐다.

III. 석방 이후의 계몽적 출판활동

그는 석방된 동지들과 함께 1903년 10월에 윤치호와 閔泳煥 등이 창립한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 입회했다. 이 사실에 엿보이듯 그는 이미 기독교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감옥생활 때 다른 동지들과 함께 서양인 선교사의 인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다.¹⁷⁾

그 이후 활동은 이 단체에 국한됐다. 그러나 1905년에 망국적인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조선의 지도층 사이에 애국계몽운동 또는 실력배양운동이 빠르게 성장하자 그도 여기에 참여했다.

그의 활동은 우선 1907년 2월에 창간된 월간지 『夜雷』에 대한 왕성한 기고로 시작했다. 당시의 대표적이던 이 대중계몽지는 그해 7월에 폐간되고 마는데, 그는 거의 매달 기고했다. 제1호에 “응용경제”를, 제2호(1907년 3월)에 “民元論”을, 제3호(1907년 4월)에 “국채와 경제”를, 제4호(1907년 5월)에 “豊年不如凶年論”과 “戒煙禁酒論”을, 제5호(1907년 6월)에 “조합의 필요”를 각각 발표한 것이다.¹⁸⁾ 이 논설들 가운데 정치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민원론”으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으며 그렇기에 국가는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제의 통감부가 해산시킨 大韓自強會의 후신으로 1907년 11월에 결성된 대한협회에 평의원으로 가입했다. 이 단체는 1908년 7월에 항일민족주의자 南宮億이 회장직을 사임한 뒤 항일파와 친일파의 분화를 보였고 1909년 9월에 이르러서는 친일파가 친일단체 일진회와 제휴를 추진한 일도 있었지만 결코 반민족 친일단체는 아니었다. 안용준이 적절히 지적했듯, 이 단체의 기관지로 1908년 4월에 창간됐고 1909년 3월에 통권 11호로 폐간된 『대한협회 회보』에 게재된 “논설이나 각지에서서의 강연활동은 애국을 전제로 한 교육과 산

16) 안회남, 「나의 어머니」, 『朝光』 제6권 제6호(1940년 6월), 208-209쪽.

17)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편), 『종교·교육투쟁』(서울: 햇불사, 1980), 36쪽; 안용준, 앞의 논문, 12쪽.

18) 안용준, 앞의 논문, 15쪽.

업을 강조하여 계몽적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친일단체 일진회와 그 성격을 뚜렷하게 달리하는 것이다.”¹⁹⁾ 그는 『대한협회 회보』를 통해 “회사의 종류”(제4호, 1908년 7월), “민법과 상법”(제4호), “정치가”(제5호, 1908년 8월), “고대의 정치학과 근세의 정치학”(제6호, 1908년 9월), “정부의 성질”(제7호 및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연재)을 각각 기고했다.²⁰⁾

안국선은 이어 1908년 2월에 창립된 畿湖興學會에 참여했다. 金允植 등과 함께 월보저술원의 자격으로 이 단체의 기관지 『기호흥학회 월보』에 “정치학 연구의 필요”(제2호 1908년 9월) 및 “고대의 정치학”(제4호 1908년 11월)을 기고했다. 그밖에도 학생들의 글을 공모해 장학금을 주고 또 그들의 발표무대로 역할한 『장학월보』에 남궁억 및 김윤식 등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항일 교육운동에 이바지하기도 했다.²¹⁾

『대한협회 회보』와 『기호흥학회 월보』에 발표된 그의 정치학 관련 논설들은 모두 서구 민주주의의 이론들에 바탕을 둔 것들이었다. 주권재민의 원리 위에서 선거와 정당 및 의회를 논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 논설들을 모두 읽은 권영민은 우선 “이러한 논설 속에는 안국선이 근대적인 서구의 정치이론을 공부하면서 습득한 민주적인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총평한 뒤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국가의 존립이 국민의 원기에 달려 있고 국민은 또한 국가의 주권이 유지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민원론”에서는 당시 한말의 사회상을 비판하면서 국가의 주권 역시 공고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그는 정치가를 賢哲과 동일시하여 정치가의 임무는 덕행의 이상적인 표준에 적합한 국민을 양성함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평등의 개념에 따라 모든 국민은 누구나 그 국민의 가치에 비례하여 정치가의 지위에 설 권리가 있다고 했다. 특히 무단정치의 수단을 사용한다면지 권모술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정치가의 도리가 아님을 역설함으로써 당시 열강 제국의 침략야욕을 지탄했다.²²⁾

19) 위와 같음, 14쪽.

20) 위와 같음, 15-16쪽.

21) 위와 같음, 16쪽.

22) 권영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 1249쪽.

안국선의 이러한 주장은, 권영민이 적절히 지적했듯, “전제군주 제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권영민의 요약으로, “모든 정부는 통치자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거해 움직일 때에만 올바른 정치가 행해질 수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바탕을 둔 헌법이나 법률을 기반으로 정치가 행해질 때 정부의 통치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안국선의 주장은 확실히 진보적인 것이었고 이상론에 가까운 것이었다.²³⁾

안국선의 출판활동은 잡지에 대한 기고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항일적 성격이 강했던 출판사 普成館의 번역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우선 1907년 5월 15일에 『外交通義』 상·하 두 권을 보성관에서 역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외교관인 나가오카 하루가즈(長岡春一)가 1901년에 도쿄의 출판사 유키가쿠(有斐閣)에서 한 권으로 출판한 것이다.²⁴⁾ 저자는 1877년생으로 1900년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불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공법을 전공하다가 곧바로 외무성 참서관에 임명됐으며 일본국제법학회 간사로도 활약했다. 그는 1901년에 이 책을 출판한 뒤 “국제법에서 본 일러전쟁의 연구”라는 프랑스어 논문을 발표했으며 1908년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07년에는 李儁 열사가 참가해 유명하게 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위원 수행원으로 참가했고, 그때의 조약을 해설한 『성문 국제공법』을 1909년에 발간하기도 했다. 그 뒤 외무성 조약국장과 주독대사 및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으며 1949년에 72세로 병사했다.

김효전이 지적했듯, 이 책도 역자인 안국선이 대학에서 배운 교과서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때 “조선에서는 국제법과 외교는 국권을 수호하는 방책의 하나이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임을 각종 신문의 논설이나 계몽잡지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했으며,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에 자주 광고가 나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식자층에 크게 인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책은 외교와 국제법에 관한 기초적인

23) 위와 같음.

24) 이 책과 저자에 대해서는 김효전, 앞의 책, 451-457쪽에 자세히 소개됐다. 필자는 전적으로 이 소개에 의존했다.

25) 위와 같음, 453쪽.

이론들의 해설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외교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가의 외교기관의 특권은 무엇인가? 외교의 예식은 어떻게 돼 있는가? 열국회의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등의 물음을 다룬 것이다.

안국선의 번역본을 원서와 대조한 김효전은 안국선이 본론 제2편 제3장의 외무성 및 외교관 관제, 그리고 제4편 제5장의 외교담판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김효전은 그 원인이 “통감부의 검열정책”에 있다고 추론했다.

이 책에 이어 안국선은 같은 해 7월 22일에 역시 보성관을 통해 『비율빈 戰史』를 역간 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최원식이 소상하게 분석했기에²⁶⁾ 필자는 이 분석에 바탕을 두고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비율빈 전사』의 저자는 필리핀의 애국자 마리아노 폰세(Mariano Ponce)였다. 그는 필리핀의 불라칸 주 발리와그에서 1863년에 태어나 산 후안 데 레트란 대학(the Colegio de San Juan de Letran)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은 뒤 산토 토머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Santo Thomas)에 진학하고 나서 스페인으로 유학해 마드리드 중앙 대학교(Universidad Centnal de Madrid)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얻었다.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그는 『라 솔리다리다드(La Solidaridad)』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連帶라는 뜻의 이 잡지는 스페인 통치 안에서의 필리핀의 자치를 요구하는 민족주의적 필리핀 자치운동가들의 대변지였다.

그는 스페인에서 학업을 마친 뒤 1898년부터 1908년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스페인 정부와 필리핀 혁명가들 사이에 믿을 만한 중재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필리핀의 자치와 독립을 위한 선전활동에 전념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혁명가 순원(孫文)을 만나 감명을 받기도 했고, 1901년에 『비율빈 전사』를 일본에서 출간했다. 그는 1908년에 귀국한 뒤 정계에 투신해 필리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약했으며 만 55세가 된 1918년에 폐결핵으로 죽는다.

『비율빈 전사』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을 상대로 전개된 필리핀 사람들의 독립전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그 전쟁에 패배해 쫓겨나게 된 스페인을 대신해 필리핀을 지배하려는 미국을 상대로 1899년 2월에 시작된 필리핀 사람들의 저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필리핀 사람들의 저항은 1902년에 참담한 패배로 귀결되고 만다.

이 책은 1901년에 일본에서 출간되면서 곧바로 일역됐다. 안국선은 물론

26) 최원식, 앞의 논문, 344-358쪽.

일역본을 읽었다. 강대국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약소민족의 독립을 호소한 이 책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에 가슴아파하던 안국선의 피를 끓게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본으로부터 중역해 이 책을 펴내면서 동포들의 항일의식과 독립열망을 일깨우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원식이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한 이 책의 번역을 통해서 한국인이 필리핀 독립전쟁에 연대를 표시한 것은 곧 일제를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국권회복운동의 한 표현이었던 것이다”라고²⁷⁾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IV. 『정치원론』과 『연설법방』의 출판

왕성한 집필력을 이미 과시한 안국선은 『비율빈 전사』를 역간한 때로부터 석달밖에 지나지 않은 1907년 10월에 황성신문사에서 『정치원론』을 출간함으로써 다시 한번 다작의 저술가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朝陽報』 제2권 제12호(1907년 1월)의 15-19쪽에 『정치원론』의 일부가 게재되어 있음에 미뤄, 그는 이 책의 출판을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책을 그의 저술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에 김효전은 이 책이 일본의 정치학자 이치지마 켄키치(市島謙吉)가 1889년에 도쿄의 富山房書店에서 출판한 『정치원론』의 번역임을 밝혀냈다.²⁸⁾ 이 원서의 첫 페이지에 ‘도쿄전문학교 참고서’라고 써 있음에 비춰, 또 실제로 원저자가 도쿄제국대학을 중퇴한 뒤 도쿄전문학교의 강사로 정치원론을 강의했음에 비춰, 이 책 역시 안국선이 도쿄전문학교에서 공부하던 때 배웠던 책들 가운데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원저자는 서문에 자신의 참고문헌을 “울시(Woolsey)씨 정치학, 오스틴(Austin)씨 법리학, 밀(Mill)씨 대의정치론, 바조트(Bagehot)씨 헌법론, 리발(Rivall)씨 자치론, 칼훈(Calhoun)씨 식민론, 아모스(Amos)씨 정치학, 블룬츨리(Bluntschli)씨 국법론, 토크비유(Tocqueville)씨 자치론, 스펜서(Spencer)씨 사회학,

27) 위와 같음, 357쪽.

28) 김효전, 앞의 책, 447-451쪽.

글래드스톤(Gladstone)씨 헌법론, 메이(May)씨 헌법사, 토드(A. Todd)씨 영국정치론"이라고 밝혔다. 이 목록이 말하듯, 당시 세계의 정치학을 이끌던 영국 학자들의 저서들에 주로 의존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것은 모두 상·중·하 3편 24장으로 구성됐다. 상편은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이다. 제1장은 “정치학을 汎論함”이고, 제2장은 “정치 목적을 논함”이며, 제3장은 “정치 기원을 논함”이고 제4장은 “주권론”이다. 이어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정치체제론으로, 제5장은 “정체의 구별을 논함”이고, 제6장은 “1인 정체론”이며, 제7장은 “소수정체론”이고, 제8장은 “다수정체론”이다.

이어 중편을 형성한 제9장부터 제17장까지는 정치의 갖가지 제도와 기구를 다뤘다. 제9장은 “헌법을 범론함”이고, 제10장은 “대의 제도를 논함”이며, 제11장은 “선거권의 구역을 논함”이고, 제12장은 “간선 직선의 이해를 논함”이며, 제13장은 “소수대표법을 논함”이고, 제14장은 “투표법을 논함”이며, 제15장은 “대의사의 임기를 논함”이고, 제16장은 “의원론”이고, 제17장은 “정당론”이다.

이어 하편은 제18장부터 제24장까지로 그 가운데 제18장부터 제23장까지는 정부의 3부를 다뤘다. 제18장은 “정부의 3대 部局을 논함”이고, 제19장은 “입법과 행정의 관계”이며, 제20장은 “사법과 행정의 관계”이고, 제21장은 “대 의원의 직무를 논함”이며, 제22장은 “중앙정부론”이고, 제23장은 “지방정치론”이다. 마지막 제24장은 “속국정치론”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국제관계론 또는 국제정치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필자의 줄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²⁹⁾ 따라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다. 다만 간단히 소개한다면, 이 책은 亞里士德路(아리스토텔레스), 保利卑士(폴리비우스), 舍夫西(홉스), 錄久(로크), 盧騷(루소), 孟德斯鳩(몽테스키외), 伯崙知理(블룬츨리) 등 유럽의 고전적 정치 사상가들의 정치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계약설, 정부분류론, 혼합정부론, 성문헌법 대 불문헌법, 대통령중심제 대 내각책임제, 권력분립론, 단원제 의회 대 양원제 의회 등을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이 책은 대체로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를 표시했다.

29) 김학준, 「우리나라 정치학 도입기의 지도적 정치학자 안국선의 주요 저서 소개」, 238-244쪽.

이 책에서 특히 안국선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이 책이 사회진화론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자연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듯,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은 그 당시 일부 약소국 지식인들로 하여금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과 지배를 부도덕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 이론을 받아들인 한말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피하려면 스스로 국가와 민중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고 거기서 애국계몽운동 또는 실력배양운동이 자라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일부 지식인들은 후진적이고 무력한 민족의 장래를 체념하고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일체에 투항하기도 했다.³⁰⁾ 우리가 이미 보았듯 안국선이 애국계몽운동가의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 그가 잠시 친일의 길을 걷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안국선의 『정치원론』은 192쪽으로, 2백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5백매가 채 안 되는 길이이다. 이것은 그가 원서를 완역하지 않고 축역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구성은 원서 그대로 상·중·하 3편 24장으로 되어 있다.

안국선의 『정치원론』은 국한문으로 쓰였고 가격은 60전이였다. 자신의 아호를 天江으로, 별호를 弄球室主人으로 각각 표기했다. 이 책의 한 부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의 앞장에 써 있는 붓글씨를 보면 이 책이 隆熙 4년에, 곧 1910년에 양정의숙 경제과 우등졸업생 吳命根에게 상품으로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 이 책은 융희 원년에 출판됐다. 그렇다면 이 책은 몇 해안에 학교 우등졸업생에게 상품으로 주어질 정도로 성가를 쌓아올렸던 것 같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 책의 출판 배경을 쉽게 알 수 있다. 石翁 趙彰漢의 序에 따르면, 안국선은 일본에 유학해 정치와 법률 및 경제 등 ‘新學’을 ‘다년간’ 연구하고 귀국했으나 “세상의 뜻과 같지 아니하여 몇 해 동안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책자를 들고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이 『정치원론』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조창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에

30) 金度亨, 『대한제국期の 정치사상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4), 31-68쪽.

대해 필자는 아무런 답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조창한에 따르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없던 책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찬해서 지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책은 “국가의 성쇠와 治亂이 전적으로 정치의 明과 不明 여하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주며, 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정치적 관념을 가진 즉 그 나라가 부강하고 정치적 관념을 갖지 못한 즉 그 나라가 陵替해졌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념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바로 정치학을 연구해야 한다. 다시 조창한에 따르면, 안국선의 『정치원론』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로부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의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만반의 제도를 빈틈없이 모두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정치학의 원리와 원칙을 깨닫게 해주고 각국 정치제도의 득실과 利弊를 꿰뚫어 보게 해 준다는 것이다.

조창한의 이러한 평가는 물론 과장이다. 왜냐하면 첫째, 이 책이 나오기에 앞서 서양의 국가학과 정치학을 소개한 책들이 이미 출판돼 있었기 때문이다. 1905년 5월에 이준 등이 세운 학술단체 헌정연구회는 같은 해에 『憲政要義』를 출판했으며, 1905년과 1906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전라북도 금산군 군수 金宇植은 『國民須知』를 출판했고,³¹⁾ 1906년에 石能 羅階과 壽松 金祥演은 譯述의 형태로 『국가학』을 출판했다.³²⁾ 이러한 책들은 안국선의 『정치원론』처럼 근대적 서양 정치학의 시각에서, 특히 입헌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및 정당정치의 시각에서 국가와 정치를 설명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출간이 갖는 의미가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이 책은 그 무렵 대한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빠르게 보급되던 입헌공화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의 이론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군주전제체제에 비판적이던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했기 때문이다.

둘째, “세상이 뜻과 같지 아니하여 몇 해 동안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가 어느 날 한 책자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안국선이 출강하던 학교에

31) 崔起榮, 「헌정연구회에 관한 일 고찰」, 趙恒來(편저),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10-24쪽.

32) 이 책의 영인본이 1986년에 부산의 도서출판 민족문화에서 간행됐다. 이 영인본에는 김효전의 해설이 붙어있다.

서 강의의 교과서로 쓰기 위해 이 책을 역간했던 것이다. 김효전이 밝혔듯, 안국선은 1906년 11월에는 이기용이 설립한 敎明의숙의 교사로 정치원론을 강의했으며 1907년 2월에는 廣信상업학교의 교사로 상법과 행정법 등을 강의했다. 또 大東상회에서 회계를 보기도 했다. 김효전이 적절히 지적했듯, “그는 이 시기에 교재의 필요성에서 『정치원론』, 『외교통의』[···] 등을 정력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이 책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다. 『황성신문』 1907년 11월 2일자 및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5일자에 실린 한성부의 광고에 따르면, 이 책은 “學部로서 經義時務의 士를 試選하기 위하여 발포한” 참고서명 속에 열거되어 있다.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그것을 대체한 관리 선발시험에 경제학과 법학 및 정치학과 같은 신학문이 포함되면서 그러한 수요에 맞춰 이 책은 역간됐던 것으로 보인다.³⁴⁾

같은 맥락에서, 그는 1907년과 1908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행정법』 상·하를 역술해 보성관에서 출판했다. 김효전에 따르면, “원서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자 서문이나 발문도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행정법 교과서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원론』이나 『외교통의』 모두 [···] 도쿄전문학교의 교과서를 번역한 것으로 보아 일본 유학 중에 배웠거나 사용한 교재 중의 하나일 것이다.”³⁵⁾

안국선은 『정치원론』을 역간한 때로부터 1개월 뒤인 1907년 11월에 탑출판사를 통해 『演說法方』을 출간했다. 이 책은 모두 76쪽으로 『정치원론』의 40% 정도의 양이다. 2백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약 2백매의 길이이며, 가격은 20전으로 되어 있다. 3판이 이듬해 8월에 日韓인쇄주식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책 역시 널리 읽혔던 것 같다.

이 소책자의 서문 역시 조한창이 썼다. 여기서 그는 “我韓이 속박주의를 벗어나 석방주의를 채택하며 武新시대를 지나 헌정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언론자유가 불가피하게 존중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책이 나왔음을 치하했다. 이어 저자의 짧은 緒言이 있다. 여기서

33) 김효전, 앞의 책, 449쪽.

34) 위와 같음, 450-451쪽.

35) 위와 같음, 476쪽.

저자는 弄球室主人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이 책은 (1) 웅변가의 최초, (2) 웅변가 되는 법방, (3) 연설자의 태도, (4) 연설가의 박식, (5) 연설과 감정, (6) 연설의 熟習, (7) 연설의 종결로 구성됐다. 책의 끝에 부록으로 “학술강습회의 연설”, “낙심을 계하는 연설”, “청년구락부에서 하는 연설”, “정부정책을 공격하는 연설”, “학도를 권면하는 연설”, “부인회에서 하는 연설” 등의 연설 예문들을 실었다.

이 소책자를 정치학 분야의 책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이 소책자는 제목 그대로 어디까지나 연설의 방법론을 자기 나름 제시했을 뿐이다. 유명한 브루터스와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소개하기도 했고, 데모스테네스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책자는 서양정치사에 대한 저자의 소양을 말해 주며, 정치가의 자질 가운데 하나로 웅변술을 강조한 저자의 웅변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준다. 이 책과 관련해 권영민은 다음과 같이 총평했다.

안국선은 청년들의 지식 개발과 사회문명의 개진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의 애국심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학술 강습회 연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부인회에서 하는 연설”)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국민의 행복도 증진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관리들을 통박하고(“정부정책을 공격하는 연설”), 젊은 학도들은 모든 교활한 수단을 버리고 정당한 기상을 배양하여, 간교한 소인배가 권세를 휘두르며 군자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바르게 다할 것을 내세웠다. 또한 외세 침략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현실에 비추어 민족의 일치 단결과 새로운 기백을 강조하였고(“낙심을 계하는 연설”), 인내와 용기와 근면을 앞세워 학도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³⁶⁾

V. 일제 관리로의 변신

권영민이 적절히 지적했듯, 『연설법방』을 통해 안국선은 당시 대한제국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매섭게 비판했다. 그의 그러한 비판은 그가 1908년 2월에

36) 권영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 1251쪽.

황성서적조합을 통해 출판한 『금수회의록』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 소설의 내용과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들이 나왔고³⁷⁾ 필자도 자신의 분석을 제시했기에³⁸⁾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상기시키고 싶은 사실은 그의 저서 및 역서가 『외교통의』와 『행정법』을 빼놓고는 모두 뒷날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서로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그의 글들은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역모의 주동자로 처형됐던 안경수의 伸冤이 이뤄져 1907년에 고종이 직접 毅愍이라는 시호를 내리게 되자, 그에게도 관직에의 길이 열려 1908년 7월 20일자로 給6급俸의 度支部 서기관에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대한협회와 기호흥학회 등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끊고 사회비판적인 논설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과 관련해 권영민은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 정치적인 사건으로 투옥되어 유배 생활의 곤욕까지 겪었던 안국선의 야심은 관계에의 진출로 실현되었는데, 그의 비판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늘 공격했던 권력층에 그 자신이 스스로 접근해 갔다는 것은 지식인의 현실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³⁹⁾ 논평했다.

어떻든 안국선의 관직 생활은 순조로웠다. 그는 1908년 9월에 탁지부 이재국 감독과장으로 승진했고, 1909년 12월에 이재국 국고과장으로 전임된 채 1910년 8월에 망국을 맞이하게 됐다. 망국의 시점에서 그는 사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가 세워진 뒤 1911년 2월에 고등관 7등의 자리인 경상북도 청도군 군수로 임명됐고 1913년 7월에야 비로소 사임했다.⁴⁰⁾

청도군수를 물러남으로써 ‘친일’ 관료 생활을 청산한 안국선은 서울에 올라와 大東전문학교 등에서 주로 정치학과 경제학을 강의했다. 이어 1915년 8월에 修文書館을 통해 『共進會』를 출판했다. 이 단편집에 대해서도 많은 국문학자들의 분석이 이미 나와 있기에⁴¹⁾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지적돼야

37) 주7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38) 김학준, 「우리나라 정치학 도입기의 지도적 정치학자 안국선의 주요 저서 소개」, 236-237쪽.

39) 권영민, 앞의 논문, 1250쪽.

40) 안용준, 앞의 논문, 17쪽.

41) 대표적인 분석은 이재선, 『한국개화기 소설 연구』(서울: 일조각, 1972)에 있다.

할 것은 이 단편집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동조” 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패배하고 있는 작가 의식”을, 심지어는 “친일적인 감정”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는 사실이다.⁴²⁾ 이재선의 표현으로는 안국선의 “변질”을 보여주었다.⁴³⁾

VI. 비판정신을 되찾다.

『공진회』를 출간한 뒤 1년 지난 1916년에 안국선은 안성으로 낙향했다. 광산업과 미곡상 등에 착수했으나 모두 실패해 가난만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아들의 짧은 회고에 따르면, 그의 낙향 시절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신 시절이었다.” 아내를 위해 “심심하겠으니 소설이나 읽으라고 하시며 『跋涉記』라는 상하 2권으로 된 복수담과 『도염라傳』이라는 哀話를 창작하여 주셨다.” 그래서 아들은 “서당에 다녀온 후 每夜 [...] 어머님께 이것을 읽어드리었다. 그 뒤 이 책들은 동리 머슴들의 손에서 녹아 없어졌다.”⁴⁴⁾

안국선이 다시 서울로 이사한 것은 1920년이였다. 아들의 회고에 따르면, “3대 독자인 나 하나의 교육을 위하여서였다.” 장남 必承(필명 회남)과 장녀 玉範을 거느리고 착실한 기독교 신자로 생활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문필 활동을 재개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비판적인, 때로는 항일적인 글들을 적지 않게 발표했다. 우선 일제치하에서 민족적인 성향을 보인 단체인 YMCA의 출판물인 『청년』에 여러 논설들을 발표했다.

이 월간 제1호(1921년 3월)부터 제3호(1921년 5월)까지 연재된 “경제상으로見た 반도의 장래”를 보면 일본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경제 정책은 “일본의 부속적”인 것이었고 “조선의 경제를 본위로”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뒤, “당국의 경제정책은 노골적으로 일본경제의 종속 [이었고] 조선을 일본의 延長”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당국의 誤策”이라고 비판했다.⁴⁵⁾ 그는 이어 일본 당국이 조선을 “일본 내지의 종속적 경제로 작함

42) 권영민, 앞의 논문, 1256쪽 및 1257쪽.

43) 이재선, 「안국선론」, 16-17쪽.

44) 안회남, 「선고유사」, 3쪽.

45) 안국선, 「경제상으로 견한 반도의 장래」, 『청년』 제1호(1921년 3월), 13쪽.

은 원대한 정치안목으로는 취하지 아니할 바라”고 강조하고, “조선인을 안목에 두지 아니”⁴⁶⁾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통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조선이 ‘국민자족경제’를 추구해야 할 것을 제의했다.⁴⁷⁾

같은 논지는 1920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된 “세계경제와 조선”이라는 논설에서도 반복됐다. 그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정책을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핀 뒤 그것에 맞서기 위해 조선경제는 자립경제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사회주의를 논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의’를 옹호하는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등장했다고 설명한 뒤, 소비에트 러시아의 불세비즘은 그러한 사회주의의 한 줄기로 파악했다.⁴⁸⁾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나 불세비즘에 대한 찬반의 표시를 유보했다. 그의 이 글을 바탕으로, 안용준은 그를 “사회주의를 국내에 소개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다.⁴⁹⁾ 그 자리매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소개는 결코 전문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평범한 초보적인 해설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무렵 그는 이미 병약한 몸이었다. 그리하여 1926년 7월 8일에 병사했다. 향년 48세였다.

VII. 맺음말

안국선은 국문학자들 사이에서 신소설의 개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서양정치학의 수용자 또는 소개자로서도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다.

물론 안국선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수용자 또는 소개자의 그것에 국한됐다. 그것도 일본에 이미 도입됐던 내용에 한정됐다. 그 자신의 이론이란 것은 전혀

46) 위와 같음, 제2호(1921년 4월), 21-22쪽.

47) 위와 같음, 제3호(1921년 5월), 5-6쪽 및 6-7쪽.

48) 위와 같음, 제1호, 11쪽. 안국선, 『레닌주의는 합리한가』, 『청년』 제5호(1921년 7-8월호), 4-6쪽.

49) 안용준, 앞의 논문, 60-61쪽.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소개를 통해 서구의 입헌민주주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대한제국 시기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전파됐음은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일제 총독부 시대의 개시와 더불어 조선에서 그러한 내용의 정치학마저 활발히 토론되지 못했음은 불행한 일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시대적 제약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에 드문 선구적 정치학자였던 안국선이 그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은 역시 불행한 일이었다고 하겠다.